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광 중에 계신 주(찬41/새20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봉운 집사 2부/이종선 집사 3부/김학남 집사 4부/신영록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 아니면(작곡 조성은)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1:1-22: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6) 신면인식장애 (神面認識障礙)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거지왕초 다윗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BOGO 피자

BOGO Pizza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모처럼 식구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식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녁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쏘 테니, 뭐 먹으러 나가자” 했더니, 아들들이 피자를 시켜 먹자고 합니다. 모처럼 모였는데 더 좋은 거 먹자고 했는데, ‘BOGO’라고 피자를 먹자고 합니다. ‘보고’ 피자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Buy One Get One Free!” 앞자를 딴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피자 한 판 가격에 배달된 두 판의 피자를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BOGO 피자를 먹으니, 왠지 더 맛이 있습니다. 아마, 한 판을 공짜로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OGO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던 야곱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레아는 잘 생기지 못해서 늘 열등감 속에 살았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는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큰딸 레아를 끼워 팔기를 전제로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라헬을 얻는 지참금에 레아를 공짜로 얻어 받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언니이면서, 조강지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사랑에 관해서는 늘 2등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우리에게 BOGO의 연민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레아에게 우리의 마음이 묘하게 끌리는 것은 우리 역시 BOGO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라 했습니다(고전 6:20). 신부 된 예수님의 지참금, 보혈의 가격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끼워 팔린 BOGO들입니다. 라헬이 아니면, 레아는 시집도 못 갔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식탁에 조인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가격에 완전 “공짜”로 술값만 엮고 가는 수혜(受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감격이며 감사입니다. 살아 호흡하는 것도 공짜요, 함께 베델의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공짜입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내일은 밸런타인데이(Valentine Day)입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는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BOGO 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My family gathered together for dinner in a long time. To be more accurate, we didn't come together on purpose, but I happened to be home at dinner time. I said “Let's eat out. I'm buying”. My son wanted to order in pizza. Since it's been awhile, I said I wanted to eat something better. He said pizza is 'BOGO'. I thought there must be 'BOGO' Pizza. I found out that it's an acronym for “Buy One, Get One Free! Shortly two pizzas were delivered, having only paid for one. We ate and were full. Somehow BOGO pizza seemed tastier. Perhaps it was because one was free.

When I hear BOGO, there are biblical persons that come to my mind. They are Laban's two daughters, Lea and Rachel. Jacob, who was working for his uncle Laban, fell in love with his uncle's second daughter Rachel. Older sister Lea was a pitiful girl who was not attractive and lived with inferiority complex. This dad of two daughters makes an employment contract with Jacob who loved Rachel, with hope of sending his older daughter Lea with it. As a dowry for Rachel, Jacob got Lea for free

Lea was the older sister but was also wife. But she always came second to her sister Rachel when it came to her husband's love. We feel compassion of BOGO for unloved Lea. God poured His grace on Lea. Lineage of Messiah comes from Lea, not Rachel. Is it because we are also BOGO that we feel a certain pull towards Lea?

Bible says we were bought with the price of Christ (1Co 6:20). It says we were bought with dowry of bride Jesus, the price of His blood. We were bought as BOGO in the price of Christ's blood. If it wasn't for Rachel, Lea might have never married. In the same way, if it were not for Jesus, we would remain sinners who could never join in God's table. But we have become the subject of this benefit, that we can come for free with the price of Jesus. This is the grace, thrill, and that we are grateful for. Living and breathing is for free. Worshiping together at Bethel is for free. We have been given today to love for free. Tomorrow is Valentine's Day. We have another opportunity to give and receive love. May you have a blessed BOGO day, all because of Jesus.



주일 설교 강해- 제6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신면인식장애 (神面認識障礙)

(마 5:8)

1. 마음(heart)을 아래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 전체를 ()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고, 감정, 욕망, 열정, 생각, 이해 및 의지적 활동의 ()

2.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참고/ 램17:9, 마 15:18-20)

3. 마음이 정결하다는 의미를 아래 성경구절을 참고해서 두 가지로 정의해 보십시오.

1) _____

시편 24:3-4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2) _____

겔 36:25-26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4.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 _____ (참고/ 출 33:18-20, 시 105:4)

2) _____ (참고/고전 13:12)

5.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며 같이 기도하십시오.

■적용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적용하기



신년인사-목회자

대장 예수님 앞서 가신 길



이충경 목사
(기획/행정)

2022년 매우 공격적인 사역인 기획과 행정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설 명절 첫날 주셨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실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조정가요 행정이었다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획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조정자, 행정가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뜻이 이뤄지게 하는 일에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잘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예배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영적인 행정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함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담임목사님과 동료 사역자들의 신발 끈을 묶어주고, 성도들의 신발 끈을 묶어주는 사역자이고 싶습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 Go Deeper, Go Higher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정승락 목사
(사랑 목장/QTin/BCA/
선교/목회 지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시대가 어느덧 후반기로 들어서고, 이제 그 추웠던 시절을 지나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사랑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랑 목장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부임한 때처럼 설레고, 마음 한편에 떨림도 있습니다. 늘 사무실 뒤에서 응원했었는데 이제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을 맞추고 함께 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2022년의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옵니다. 큐티인 사역을 통해 온 가족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믿고 살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베델 클래식스 아카데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과 품성을 겸비한 리더로 날마다 자라나고 있어 참 좋습니다. 또 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던 선교 현장으로 베델이 다시 뛰어들며, 목회 지원을 통해 목회의 현장이 신바람 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성필 목사
(소망 목장/예배/선교훈련/
BAM)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띠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제가 호랑이띠라서 범패해를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범'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술선수범'이 떠오릅니다. 사전적으로 술선수범이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Leading by example'이라고도 하듯이 올해는 제가 먼저 가정에서, 목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술선수범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 중심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다 보니 함께 사역하다 보면 제 안에 들보보다 다른 사람들의 티가 잘 보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의 부족함을 날마다 말씀에 비취가며 언제나 우리에게 술선수범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예수

님께서 메어 주시는 멍에 아래에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올해는 소망 목장과 더불어 예배, 선교 훈련, BAM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며 잃어버렸던 교제와 섬김의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깊이 깨닫습니다. 다시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그 소중함을 기억하며 술선수범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저를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길 소원합니다.



김홍식 목사
(믿음 목장/훈련/평생교육)

2022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참이 상한 것은 베델에 온 지만 4년이 되었는데 유난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2년간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하지 못했고, 함께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올해는 더 깊이 옆드려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만 더 높아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결국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와 뜻을 알기 위한 말씀 공부에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서, 예배가 영광스럽고, 성도들의 교제와 훈련과 신앙의 성장에 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도 예수로 넉넉하고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해석되고, 예수로 죽기를 소망합니다.





박경철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2022년 한 해, 팔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도 쉽게 변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 "게임 체인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분만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섬기게 된 셀사역과 예배 찬양사역, 그리고 화평 목장 섬김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섬김으로 성도님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본이 되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제 마음에 모시고, 개인적으로는 체중을 감량하여 건강한 모습의 사역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를 맺고 선으로 협력해 가는 베델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고 전도사
(새가족/경조)

말씀이 살아있는 베델교회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문을 밟는 많은 분들이, 생동감이 넘쳐서 너무 좋고 말씀하실 때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의미로 들려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리셋하여 믿음으로 걸어왔던 베델 교회가 영적인 '기지개'를 펴는 한 해입니다. Go Deeper! Go Higher! 로 시작한 베델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대한 선행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미디어 시대, 생명력 있는 말씀은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온가족이 함께 나누는 같은 본문의 아침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멋진 한 해가 되시고, 주님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도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가능할 수 없는 높이로 Go Higher 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일하심만 기대하면 되는, 진정한 소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폭과 넓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일본어부 성도들과 함께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형직 목사
(베델 콰이어)

2022년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년여 동안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교제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진 2022년, 베델 콰이어와 베델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한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깊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더 높이 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모든 베델의 가족 되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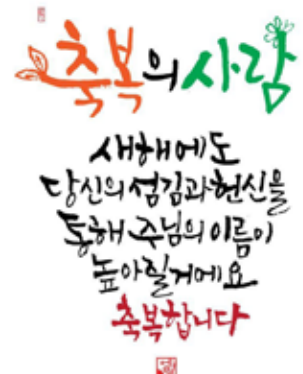
박성권 목사
(은혜 목장/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 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 3:22-23) 2022년 새해! 베델의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이곳에서 새롭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동부에서 이주한 저에게 세심한 배려와 기쁨, 친절로 환영해주시는 베델교회에서 주의 크신 성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든든한 틀을 쌓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채워져 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벽돌 사이사이에 성령의 열매



손용주 목사
(일본어 예배(JM)/헵시바)

놀라움과 당황으로 맞이한 2022년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세월을 마치 자는 야기 깨울까 조심스레 지나온 코로나 상황,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양'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지표가 두려움과 비관으로 곤두박질하는 상황을 보며 새해와 함께 희망찬 기지개를 켜려던 두 팔을 다시 급하게 거둬들여야 했던 그때의 당혹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의 주제 'Go Deeper! Go Higher'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던 듯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의 자리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더 겸손히 숙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이한 어떤 한 해보다 더 깊고 낮은 곳에서 출발한 2022년은, 이



Bethel Classical Academy

눈시울 축축한 감사



Bethel Classical Academy의 설립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베델교회의 성도인 친언니를 통해서입니다. 현 캘리포니아 공교육 커리큘럼이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가르침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몇몇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방문해 보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과 학교가 먼 관계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Classical Education(고전적 교육)이라는 커리큘럼과 성경적 교육의 적용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각 학년이 소수의 학생과 훌륭한 크리스천 선생님들로 구성되는 큰 장점에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전 학년이 모여 주기 도문을 힘차게 읊조리는 모습과 매주 금요일마다 드러지는 채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각 학년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거나 찬양 또는 Skit으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아이들의 모습에 기쁨이 넘치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제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부모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Sophie Kwon(BCA 학부모)



BCA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제가 공부했던 학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혼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글을 쓰고,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까지 하는 시간이 많은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반 친구들 수가 적고, 선생님이 쓰기 숙제에서 논리를 많이 강조하시는 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 친구들도 모두 착하고, 교장선생님과 전도사님도 잘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4-5학년은 15분 동안 조용히 책을 읽고난 후 (silent reading)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금요일마다 하는 weekly chapel에서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학년마다 성경암송 등 presentation을 준비해서 발표했는데 항상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BCA에 올 수 있던 것은 축복입니다.

정찬희(BCA 4학년)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등록 안내>

■ **입학 대상:** 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 **등록:** www.bethelclassical.org

- ①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어카운트 작성
- ② 구비서류 제출
- ③ 학부모 인터뷰 진행

■ **입학 설명회 일시/장소:**

2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유년부 예배실(Zoom: 홈페이지 참고)

■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상시 투어 가능

바이블 클럽 간증



첫사랑 기억나세요?

최호석 집사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날 그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초심을 잃고 살아가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사랑하며 설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16주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대적하시는 부분의 말씀은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나쁜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겨낼 힘이 되어주었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받은 내면의 상처들도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시작 기도와 마치는 기도예에 늘 함께 한 시편 말씀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바이블 스터디,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항상 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파이팅!!

딸아이가 학교에 입학 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I love this school"이라 외치며 저에게 달려와 안겼을 때, 그리고 같은 킨더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과도 함께 어울리는 밝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매달 주어지는 숙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복습하기 때문에 Quality time을 아이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기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언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호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경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2년 셀목자 정기 모임

건강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반은 주일예배와 셀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두 가지 기초에서 나옵니다. "Big enough to celebrate, Small enough to care." 베델교회의 강점은 '예배'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와 함께 셀모임의 활성화는 성숙해가는 믿음생활을 위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 깊이, 더 높이"라는 모토로 시작한 2022년, 신앙생활을 위한 건강한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있고 더 이상 비상하지 않는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틀림없이 점검이 불가능한 익명으로의 신앙생활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주시는 도전을 나눌 현상이 없다면,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에, 내 가족처럼 옆에서 함께 돕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셀모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생활이 아니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점검과 책임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유기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셀모임을 지향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셀모임이야말로 믿음의 도약, 'Go Higher'를 가능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 김한요 담임목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험난한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작은 우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셀모임입니다. 셀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면, 주일이 더욱 기다려지고 한 주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셀모임으로 Go Deeper, Go Higher!!! - 박경철 목사

더 건강한 셀모임을 위한 셀목자 정기 모임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 헬시바 기도회 후에 갖습니다. 모든 셀목자님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 모임 일시/장소: 2월 19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

▶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2,3월) | 2/20: ①부-노승남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영덕 ④부-오 준
 2/27: ①부-박원식 ②부-박선화 ③부-박상곤 ④부-이신경
 3/6: ①부-박재문 ②부-박재영 ③부-박지학 ④부-이종원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2,3월) | 2/19: 강덕규 2/26: 김요한 3/5: 김정우 3/12: 김종곤

강단꽃(2,3월) | 2/13: 김다민, 이도원, 최동주 2/20: 노성애, 박창현, 조 룡 2/27: 오영옥, 이나미 3/6: 김창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노완규(내과), 간호사-이정하

다음주 | 의사-오세영(한 의사), 간호사-황미례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현장 예배 전면 오픈** 베델교회는 주일 예배, 토요 햄시바 기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가 전면 오픈이 되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새생명축제(D-63)** 다음 주일(20일)에는 오픈셀에 초대할 VIP를 위한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오픈셀은 지역에 사는 VIP를 셀에 초대하여 셀식구들이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셀모임시 초대할 VIP를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작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셀목자 정기모임** 2022년부터 셀목자 정기모임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 햄시바 기도회 후에 열리게 됩니다. 첫 모임은 19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며 간단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7면 참고)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신임 셀목자 교육** 상반기 신임 셀목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통해 베델 셀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2월 7일(월)~2월 18일(금)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베델선교: 히즈윌 봉사자 모집** T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를 영어 교육(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으로 섬기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히즈윌 프로젝트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로 함께 해 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을 기다립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아침영상 500회 이벤트** 김한요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습니다. '가족 큐티'를 주제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중 한 가정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모집기간: 2월 13일(주일)~2월 18일(금)
참여방법: 4K 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가로 촬영), 가족 이름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원본 파일 보낼 곳: goodmorning@bkc.org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등록 및 입학 설명회**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과 품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로 키우는 BCA 2022-2023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대상: 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록: www.bethelclassical.org
입학설명회: 2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유년부 예배실(Zoom 참여: 홈페이지 참조)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 **교회학교 VIP 작정 카드** 4월 17일(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교회학교 자녀들도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수 있도록 VIP 작정 카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 VIP 작정을 하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부 신입생 모집** 영아부에서 18개월이 된 모든 영아부 아기들을 모집합니다. 영아부 새가족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사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다음세대 제자훈련 2단계 등록**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도록 리더로 훈련하는 제자훈련 2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기간: 2월 13일(주일)~2월 27일(주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
대상: 5-12학년
훈련 기간: 3월 6일(주일)~5월 29일(주일), 매 주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C2C(Call to Christ) 등록** 다양한 워십 장르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C2C 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등록/대상: 2월 13일(주일)~2월 27일(주일), 6-12학년
클래스 기간: 3월~6월 말, 매주 금요일 오후 4-7시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시니어 무료 음료** 실내 카페 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코인 자판기와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Bethel Grace Church 수련회 사역 기금 마련 행사** 영여권 교회 BCA 대학부에서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명랑 핫도그 판매를 코트야드에서 합니다.
날자: 2월 20일(주일), 2월 27일(주일) * 현금과 Venmo로 결제 가능
문의: Peter Lee (949)419-7085

◆ **한국학교 성인반 모집(온라인)** 베델한국학교가 성인(9학년 이상의 성인)을 위한 봄학기 한국어반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수업 기간: 수요일: 3월 9일(수)~5월 18일(수) (10주 과정), 오후 7시~9시
목요일: 3월 10일(목)~5월 19일(목) (10주 과정), 오후 7시~9시
등록 기간/비용: 2월 13일(주일)~3월 8일(화), \$200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축하해주세요**
한여 중고등부(CIM)를 섬기시는 이형석 전도사와 Jannie 자매의 결혼식이 2월 19일(토)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이정희 권사님(이호성 집사의 아내)께서 2월 5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종규 집사님(김영미 성도의 부친)께서 2월 8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최제넷 권사님(이석배 집사의 모친, 이성희 집사의 시모)께서 2월 8일(화)에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윤영술 장로님께서 2월 10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God's Face Blindness

(Matthew 5:8)

1. Please fill in the blanks below describing our hearts.

Apply to Life



Expresses the whole person in () terms, and is () for emotion, craving, passion, thought, understanding and willful action.

2. How does Jesus diagnose what's in our heart? (Ref: Jer 17:9, Matt 15:18-20)

3. Explain what is meant by "pure in heart" in the verse. Read the passages below and summarize.

1) _____

Ps 24:3-4 And who shall stand in his holy place?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 and does not swear deceitfully

2) _____

Eze 36:25-26 you shall be clean from all your uncleanness's, and from all your () I will cleanse you

4. What does it mean to "see God"?

1) _____ (Ref: Ex 33:18-20, Ps 105:4)

2) _____ (Ref: 1Cor 13:12)

5. Let us pray wholeheartedly that we may see God's face.

■ Song in Response: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 Heart and Soul – I Never Want Anything